



올해 삼복(三伏)을 다 보냈다. 누가 뭐래도 삼복은 닭고기에 있어서 대목의 계절이다. 금년도 삼복은 중간에 더위가 주춤하여 아쉬움이 없는 바는 아니나 큰 변고 없이 대목을 치렀다. 이제는 번잡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 같이, 차분한 마음으로 새 계절도 준비하고 주변도 둘러보며 여러 가지를 추슬러 볼 때다.

우선, 생산동향부터 보자. 얼마 전 발표된 농축산물 총생산액을 살펴보니 닭고기 생산액은 1조 4,294억원으로서 쌀, 돼지, 한우, 우유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고추가 9위, 사과 13위, 마늘 22위, 배 28위 이런 정도니 5위라면 대단한 성적이다. 더 눈여겨 볼 것은 성장률이다. 전년도 1조 275억원 대비 39.1%가 늘어났다. 엄청난 성장세다.

현장의 생산성도 따져본다. 믿을 만한 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니 생산원가가 6% 정도 줄어들었다는 판단이 생긴다. 육성률과 사료효율을 높이고 비품발생을 줄여서 얻은 효과이다.

소비동향은 어땠을까? 소비자들의 닭고기 선택이 크게 늘었다. '신종플루



서옥석 과장 /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감소한 반사적 결과'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작년의 경우 닭고기 소비가 줄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늘었던 것을 생각하면 옳은 말일 수 있다.

여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경제적 불황도 닭고기의 인기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설명도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닭고기의 소비가 크게 늘었고 그로 인해 매장에 따라서는 매출증가율이 100%를 훨씬 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의 줄거리가 작년 여름부터 최근까지 대략 일년 동안 닭고기 산업 전반을 둘러썬 기류라 할 수 있다. 좋은 분위기였다 할 만하다. 생산액이 39% 늘었고, 생산원가가 6% 정도 감소했으며 매출이 늘었다. 하늘의 도움인지 그토록 염려하던 악성질병의 출현도 없었으니 이만하면 풍요의 시절이었다 할 만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내 농장은 얼마나 큰 풍요를 누렸는지 돌아보자.

헌데 가끔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산업의 생산액과 매출이 늘고 생산성도 개선되었는데 그것은 바깥세상의 일일 뿐이고, '내 농장의 생산지수는 여전히 표준을 밑돌고 수익성은 그저 그렇고...' 그러니 이 일을 어찌란 말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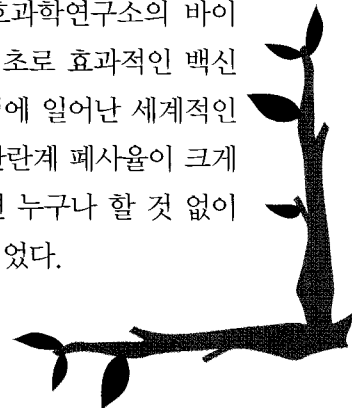
독일의 서정시인 안톤 슈낙(Anton Schnack)은 울고 있는 아이들, 정원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가을날의 비, 문득 발견한 아버지의 지난 편지, 거만한 인간, 종소리, 젊을 시절 사랑했던 여인의 묘



비명...??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라고 말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이 누리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농장의 형편을 들을 때마다 슬픔의 목록에 그 하나를 추가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 슬픔의 질이 안톤 슈낙이 열거한 가슴 적시는 애뜻한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는 사실에서 더 큰 비애와 서글픔을 느끼게 된다.

이번에는 산업이 어려웠던 시절의 사례를 살펴보자. 마렉(Marek)이란 질병을 잘 알 것이다. 악성 바이러스성 가금질병의 하나로서 림프분아 증식을 하는 접촉성 전염병이다. 세계 모든 나라에 등록되어 있으며 양계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키고 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골치를 앓고 있던 차에 전 러시아 동물보호과학연구소의 바이러스 연구진에 의해서 최초로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었다. 1970년경에 일어난 세계적인 쾌거였다. 그토록 높던 산란계 폐사율이 크게 줄어들면서 양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부자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다.



헌데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생산과잉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농장에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다 못해 양계장의 도산이 줄을 이었다. 전에는 마렉병만 걸리지 않으면 농장운영이 보장되었으나 이제는 생각할 것이 너무나 많아지고 어찌다 보면 생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손해를 키우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 한편에서 충분한 이윤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업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생산성의 차이다. 좋은 생산성은 호경기 시절에 이윤을 극대화 시켜주고 어려운 시절에는 손실을 최소화시켜 생존을 가능케 해주던가 아니면 남들이 겪는 손실을 견어 모아 나의 이윤으로 바꿔준다.

세상사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양계산업 분야에서도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 양계농장의 성패는 관리자의 기술수준과 경영개선에 대한 열정과 실천력이 결집된 결과이다. 유능한 관리자는 자신의 계군을 마치 기계같이 다룰 줄 안다. 적기에 작동 버튼을 정확히 누르면 닭들은 마치 성능 좋은 기계와도 같이 적절히 작동하여 보유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양계장의 생산성은 다른 축종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의 계열업체가 생산지수에 관련된 요인을 근거로 한 인센티브제 또는 반대로 페널티성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생산지수의 높고 낮음이 사



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농장주는 생산지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요인을 끊임없이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매사를 자신의 사육기술의 문제보다는 우연과 병아리 문제로 원인을 돌리는 태도만으로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나 생산성 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양계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우선적인 목표는 보다 높은 소득 창출이다. 생산지수에 대한 상대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보다 높은 수준의 생산성만이 소득을 보장해 준다. 끝없이 앞서야 한다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에도 버텨나가는 기업과 개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양계를 통해 만족할 만한 소득을 얻어내는 농장주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공정한 시장구조, 잘못된 사육비 지급방식, 닭고기 가격의 문제 등에 대한 불평만을 내뱉고 있을 것이다. 과연 나는 어떤 경영자인가. 분주했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을 맞는 요즘, 나와 내 농장의 좌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